제조업도 수출도 암울…내년 경제 앞이 안보인다

산업연·한경협·무협 전망 보고서…미 보호무역·중 경쟁 심화
1월 제조업 PSI 21P 급락…수출 주력 산업 반도체 고전 예상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 및 수출이 내년 초 국제 통상과 국내 정치 파고 속에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내년 한 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수립에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기 관리, 정책 방향 제시 등이 가능할지도 걱정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경제 관료들이 트럼프 2차 행정부 통상정책 대응 등 시급한 사안 중심으로 업무를 정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트럼프 제2기의 추가 관세 압박, 내수 부진, 고물가, 수출 경쟁력 약화 등 전방위로 쏟아지는 현안들이 제대로 다뤄질 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주요 경제단체·협회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는 각각 내년 전체 및 내년 초 수출·산업 관련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발표된 세 보고서의 한국 경제·수출에 대한 진단과 전망은 기대보다는 우려에 방점이 찍혔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지수(PSI) 조사 결과 내년 1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가 75로 12월 전망치(96)보다 21포인트(p) 급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11월(70)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전문가들은 당장 내년 1월부터 제조업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의 내년 1월 PSI 전망치는 12월 전망치(124)보다 무려 59p 떨어진 65로 나타나 산업 주춧돌인 반도체 업황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업황 PSI는 이미 이달 82로 전월(100)보다 18p 하락하면서 지난달까지 이어온 18개월 연속 기준치(100) 상회 기록이 깨진 상태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 이날 '2025년 1분기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EBSI)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1분기(1~3월) EBSI는 96.1로, 4분기 만에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졌다. EBSI는 작년 4분기 97.2에서 올해 1분기 116.0으로 급등하며 기준선(100) 위로 치고 올라온 뒤 2분기 108.4, 3분기 103.4를 유지했는데, 내년 1분기 전망치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15대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10개 품목이 기준선을 밑돌아 내년 1분기 수출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반도체 EBSI는 올해 1~4분기 103.4, 148.2, 125.2, 135.2 등으로 기준선을 크게 웃돌았으나 내년 1분기 전망치는 64.4로 주저앉았다. 철강·비철금속 제품(64.1), 의료·정밀·광학기기(74.8), 농수산물(77.7), 전기·전자제품(85.3), 섬유·의복 제품(87.9), 기계류(91.9), 무선통신기기·부품(94.0), 석유제품(98.9) 등 산업도 내년 1분기 수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경협 역시 이날 매출액 1천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수출 전망 조사'에서 한국의 내년도 전체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 조사에서 수출 감소를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부진 이유로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39.7%), (30.2%), (11.1%) 등을 꼽았다. 특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경협 설문에서 내년 수출 여건이 제일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으로 48.7%가 미국을 꼽았다. 중국(42.7%)은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올해의 HS효성인상' 첫 수상자에 정유조

ESG '플래티넘 메달' 획득 공로…상금 5000만원·상패 수여

HS효성의 첫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정유조(가운데) PL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HS효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HS효성 제공〉

HS효성은 지난 20일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상' 첫 수상자로 HS효성첨단소재 ESG경영팀 정유조 PL을 선정하고, 상금 5000만원과 상패를 수여했다.

여성 수상자인 정 PL은 공급망 실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대응역량 강화 등의 개선과제를 완수함으로써 HS효성첨단소재가 글로벌 최대 공급망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 메달'을 획득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 PL의 자녀와 배우자 등도 참석했으며, 시상식은 편안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기업가치 제고에 앞장선 올해의 자랑스러운 HS효성인상 수상자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가치 경영을 통해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보해양조, 학생 35명에 장학금 4400만원

1981년부터 3947명에 37억여원

보해양조가 지난 20일 목포시 대안동 본사에서 '2024년 보해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지며 지역 인재 35명에게 총 4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

수여식에는 박철수 보해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선발된 장학생들이 참석했다. 보해장학회는 전남도 교육청, 장애인 체육회 등 7개 기관으로부터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힘든 대학생 및 고등학생들을 추천을 받아 수여자를 선정했다. 선발분야는 체육, 문화, 과학, 교육 등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 40년동안 보해양조가 조성한 기본재산의 수익금과 장해에탄올, 그리고 김인주 보해양조 감사의 기탁금 등으로 마련됐다.

보해장학회는 보해양조 창업자 고 임광행 회장의 창업정신에 따라 1981년에 설립됐다.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구열이 강한 중·고·대학생들을 지원하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현재까지 총 3947명의 장학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37억8790만원에 이른다.

박철수 보해장학회 이사장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경제계 "조건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 유감"

광주경총 "현장 혼란 우려"

지역 경제계가 대법원의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기업들은 특히 대내외적 불안정성 확대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비용 부담 및 노사 갈등의 심화, 고용 감소마저 우려하고 나섰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볍원은 앞서 지난 19일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를 두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이 가운데 '고정성'은 합당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광주경총은 "과거 판결을 뒤집어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이를 토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임금관련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무엇보다 국내 정치의 혼란과 내수부진, 수출 감소 등으로 기8업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도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중소기업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노사 간의 갈등이 증가할 수 있고, 더욱이 고용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체계 단순화와 연공형에서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

제13기 명품강소기업으로 선정된 27개사 대표들이 최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지정서 수여식에 참석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글로벌 도약 '명품강소기업' 27사 지정

기술·사업화·자금 등 맞춤 지원

광주시는 "최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진 제13기 명품강소기업 27개사를 선정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명품강소기업은 ㈜금명하이텍, 주식회사 다원물산, 다이나믹 디자인, ㈜마루이엔지, ㈜서치, ㈜승광, ㈜아이지스, 주식회사 아토모스, 주식회사 에듀야, 주식회사 이즈소프트, 현대기전테크㈜ 등 11개사다. 재지정된 명품강소기업 16개사 등 총 27개 기업은 광주시와 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된다. 명품강소기업은 기술혁신, 연구개발 투자, 안정적인 매출 성장 등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진출할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 1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명품강소기업은 지정 기간 3년간(2025년 1월 1일~2027년 12월 31일) R&D(연구개발) 과제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 개선, 협업 지원 등 기업 성장 목표와 성장 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의 협업으로 지원사업 연계, 기업 애로사항 공동 해결, 경영, 기술, 자금 등도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설명회 공모 우수 5개 작품 선보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 20일까지 이틀간 여수에서 '2025년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사업설명회 및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슈퍼 IP와 지역 콘텐츠의 미래'를 주제로, 지역 IP발굴과 특화콘텐츠 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지자체와 콘텐츠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 22개 지자체 문화콘텐츠산업 주무부서 실무자, 콘텐츠 기업 관계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전남 스토리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으로, 최신 콘텐츠산업 분야 전문가 특강, 2025년도 사업설명회 및 지자체 컨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 스토리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전남 설화와 역사 이야기를 소재로 한 창작 작품들을 대상으로 해 5개 작품이 장려상 2개, 우수상 3개 등을 수상했다.이어진 전문가 특강에서는 콘텐츠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지역 적용사례들을 소개했다. (주)퍼즐릭 유남규 대표가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제작', (주)투니드엔터네인먼트 이은지 팀장이 '웹툰과 웹소설을 중심으로 스토리 IP의 세계관 확장 전략', (주)한국콘텐츠개발원 이태진 본부장이 '지역 특화소재를 활용한 생성형 AI애니메이션 제작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신세계 크리스마스 스페셜 할인 쿠폰

광주신세계가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아 오는 25일까지 패션·잡화·주방·데코·와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리스마스 스페셜 할인 쿠폰을 발급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할인 쿠폰은 신세계 앱 메인 화면에서 '신세계가 크리스마스 맛집'이라는 테마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패션·잡화 브랜드에서 30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1만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광주신세계 본관 8층에 입점한 '빌레로이 앤 보흐' 매장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머그컵과 샐러드 접시 등으로 구성된 '디자인나이프 크리스마스 세트' 등의 제품들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중 주방·욕실·데코 단일 브랜드를 대상으로는 2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F&B(식품&음료) 단일 브랜드 대상으로는 5000원 할인권을 마련했다.

광주신세계 입점과 동시에 오픈런을 일으킨 '노티드' 도넛가 '슬라이폭스'의 100% 생과일 딸기로 만든 '스트로베리 쇼콜라 라떼케이크', '하트티라미수' 등에서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와인의 경우 5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을 할인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김경훈 광주신세계 영업기획팀장은 "연말을 맞아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선물들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회에 광주신세계를 찾아 할인 혜택들을 누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로또복권 (제 115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3	9	15	27	29	8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620,503,030	17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5,013,974	102
3	5개 숫자일치	1,370,166	3,351
4	4개 숫자일치	50,000	163,055
5	3개 숫자일치	5,000	2,635,014